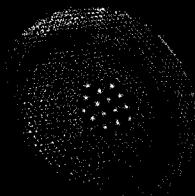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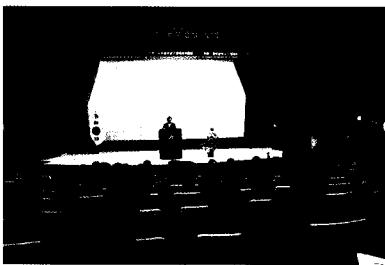


PHOTONICS INDUSTRY NEWS



국무총리 주재 호남권 신성장동력 설명회 개최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국무총리실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동으로 호남권을 방문하여 광역경제권 선도사업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설명회를 지난 3월 4일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광주, 전남·북 관련 지역 산·학·연·관 관계자 등 약 350여 명과 한승수 국무총리,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등이 참석하였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현정부가 경제살리기 게 노력중이며 한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 등의 정부정책에 호남권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은 녹색기술분야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사업이 국제 사회에 살아 남을 수 있다며 3개분야 17개과제에 대한 설명과 지역경제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정책적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성장동력 지역설명회는 정부가 지난 1.13일 발표한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한 지역 관계자들의 이해를 돋고, 4월말까지 수립 예정인 17개 신성장동력별 세부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민간 기업인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 동남권과 대경권을 시작으로 7개 광역경제권을 순회하면서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신성장동력 분야 가운데 호남권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호남권은 지난 2월 10일, 7개 광역경제권 중 마지막으로 “5+2 광역경제권별先導산업”에 합의하여 선도사업 육성에 적극 참여 의지를 표명한 상태로서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의 관심을 높임으로써 신성장동력 및 선도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호남광역경제권은 선도 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에 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서남해안 해상풍력산업 하브 구축사업, 친환경(첨단) 부품소재 산업분야에는 친환경 광기술 기반융합 부품소재 육성사업과 친환경 자동차 부품소재 육성사업 등 2개 분야 4개 프로젝트를 확정해 제출했다.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관련 신성장동력



신재생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신에너지와 태양광·풍력 등 재생 가능한 재

생에너지로 구분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유치산업 수준이나, 녹색성장이라는 전세계적 메카트렌드 가속화와 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이 동 분야에 본격 진출, 성장동력화 가능성 제고

□ 비전·목표 : ’18년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산업 강국 실현창출

□ 추진전략 : 응용 및 기초원천 기술개발, 제도개선

- 유망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기술개발 추진

- 시범사업, 보급의무화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수요창출로 상용화된 기술의 국내시장 창출

탄소저감에너지

CO₂를 배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에너지 기술기반산업

*전세계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CO₂ 회수 및 재자원화 기술확보 경쟁 가속화, CO₂발생이 없는 원전건설 확대 추세

□ 비전·목표 : ’18년 저탄소 그린산업 세계 5대 강국 실현

□ 추진전략 : 응용 및 기초원천 기술개발, 여건조성

- CO₂ 저장·활용 핵심공정개발 및 초기 시장창출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

- 원전건설에 필요한 미자립 핵심기술 조기 자립화 등

* 수출 전략형 차세대 신형원전(APR+) 조기 개발 적극 지원

LED 응용

LED산업은 애피·칩·패키징 등 반도체 공정산업과 어플리케이션(조명) 산업을 포괄

* ’17년 세계시장 규모는 140억불 규모이나, 성능향상과 함께 응용분야가 확대되면서 ’15년 약 1천억불 규모로 성장 전망

□ 비전·목표 : 세계 TOP 3의 LED산업 강국 실현

□ 추진전략 : 예산사업(시범사업), 응용기술개발



• 고효율 LED조명 보급확대

*공공기관의 고효율 LED조명 사용확대 및 공공기관에 대한 LED조명 시범사업 추진

• LED핵심 기술개발 투자

*3대분야(에피/칩/패키징, 소재/모듈,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R&D 투자 효율성 제고 및 新 핵심원천기술 선점 등

신소재 나노융합

신소재는 미래 필수 핵심소재이며,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타산업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유망 산업

*소재산업은 수출의 15.3%, 고용의 12.6%, 생산의 16.7%를 차지하고 나노융합산업은 '14년 2조6천억불의 세계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

□ 비전·목표 : '18년 세계 4대 소재강국, '15년 나노융합 3대 강국 도약

□ 추진전략 : 기초원천 및 응용기술 개발

• 신소재·나노융합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 Hub & Spoke 네트워크를 통한 실용화기반 강화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등

고부가 식품산업

BT·IT 등의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문화·관광 등 타분야와 접목되어 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는 식품산업

- 기존 전통적 개념에서 탈피한 신개념 식품(기능성 백화유, 대체식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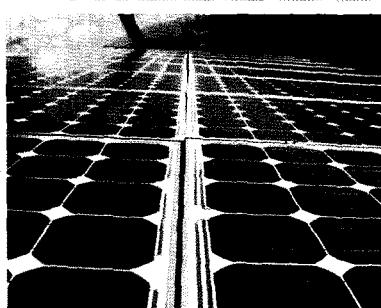
*국내 식품산업 매출액은 100조원으로 세계시장 4조 불 대비 2.5% 수준이나 지속 성장

□ 비전·목표 :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 일류 식품산업

□ 추진전략 : 예산사업(인프라 구축)

• 한식 세계화를 위한 홍보 및 전통·발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조성(표준화·산업화), 식품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한 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호남권 선도산업 개요



신재생에너지

□ 산업여건

•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필요한 천혜의 자연환경이 구비되어 있으며, 소재·모듈·완제품 업체 및 전후방업체가 Value Chain을 구성하고 있는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여건 양호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수는 429개이며 실증단지가 기구축

□ 비전·계획 : '15년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산업 허브로 육성

• '15년 세계시장 8% 점유, 고용창출 10만명, 신재생에너지기업 250개 창출, 전문인력 5천명 양성과 국가 신재생에너지 50% 이상 생산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에너지산업 허브구축과 '풍력·해양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계획의 핵심

친환경 부품소재

□ 산업여건

• 광주를 중심으로 광산업이, 전남지역은 조선·신소재산업, 전북지역은 자동차산업이 발달하는 등 부품소재산업 기반이 양호

• 권역내 다수의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을 통한 산학연 협력이 용이하며, R&D 인프라 갖추어져 있는 등 성장잠재력이 양호

□ 비전·계획 :

▶ 광소재 분야 세계 Top 3 산업으로 육성
▶ 친환경·휴먼친화 상용차/SUV 부품소재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 LED조명 및 유통시스템 등 기술선점을 통한 신사업 창출 및 시장경쟁력 확보

• 광기술을 접목한 해양 조선기자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호남 경제권 활성화 도모

• 글로벌 경쟁력 선도 20대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체 및 10대 소재산업체 육성 등

*호남권 자동차/부품생산 전국비중 30%/5%로 성장, 호남권 자동차소재산업 전국비중 10%대 전망 목표

우리 LED론이란?

□ 그린솔라론, 로봇시대론에 이은 녹색성장 산업 특화상품 제3탄 출시

□ 한국광산업진흥회, 기술보증기금과 업무 협약 체결

우리은행(은행장 李鍾輝, www.wooribank.com)은

최근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LED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LED기업을 특별지원하는 「우리 LED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은행은 한국광산업진흥회, 기술보증기금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LED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광산업진흥회의 업종추천과 기술평가를 완료한 LED기업을 대상으로 R&D기업, 제조업, 무역업, 신용보증서 발급기업에 대하여 기존 영업점장 전결 여신한도 외에 추가로 최대 3억원 까지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최대 0.3‰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한국광산업진흥회의 업종추천만 반더라도 생산시설자금 대출한도를 기존보다 10%~5% 확대한 최대 85%~8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은 최장 5년, 시설자금은 최장 10년이며 대출금리는 고정과 변동금리, CD연동형 금리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3월 23일 현재 CD연동형의 경우 최저 5.18‰까지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녹색성장산업으로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LED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은행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기업과 정부, 은행 모두가 상생(相生)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장의 동력을 계속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엄청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LED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전략부 ☎ 02-2002-4738로 하시기 바랍니다.

